

## ‘마지막’ 체전

▲ 지난 9월 23일부터 총학생회의 주최로 낙산체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 외에 응원을 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한 학생이 여러 경기에 출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내년 2월부터 착공되는 종합관으로 인해 이번 체전을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체전을 개최할 수 없다. 학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체전의 열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처럼 운동장 사용이 자유롭게 못할 것인데, 체전의 광경이 안타까울 뿐이다. 낙산체전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대상 수상해



▲ 대상을 수상한 군단의 심장팀의 모습이다.

‘2013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이하 KOSAC)’에서 ‘군단의 심장’팀(한성대 학생 3명, 성균관대 학생 1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KOSAC은 한국광고협회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계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올해 9회를 맞이했다. 올해 열린 KOSAC은 101개 학교에서 약 3200명, 805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대회는 805개 팀이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대회를 치렀다. 최종 선발된 13팀은 지난 9월 6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동북아 LCC시장’에서 진여의 차별적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군단의 심장팀은 김민재(사각 09) 조장과 안현철(영어영문 05), 이병욱(경영 06), 정일성(성대 07) 세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눈에 보이는 가격과 서비스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접근하는 ‘Journey is Near’라는 컨셉을 잡고, 브랜드의 호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단의 심장팀은 “KOSAC은 광고계에 꿈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참가할 만큼 큰 대회다. 다른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욱 팀원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장’팀(한성대 학생 3명, 성균관대 학생 1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KOSAC은 한국광고협회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계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올해 9회를 맞이했다. 올해 열린 KOSAC은 101개 학교에서 약 3200명, 805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 한국연구재단, 학문분야별 전국 대학평가 발표

역사학 6위, 행정학 8위, 사회학 18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전국 대학평가에서 한성대학교가 역사학(6위), 행정학(8위), 사회학(18위)에서 20위권에 들었다. 또한 ‘학문분야별 영향력 학자’에 행정학분야 2위 이종수(행정학과 퇴임) 교수, 경제학분야 6위 박승록(경제학과) 교수, 한국어와 문학분야 13위 김동환(한국어문학부) 교수가 순위에 올랐다.

이에 이종수 교수는 “한성대학교는 2006년도에 전국 대학평가에서 행정학분야에서 4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번에 8위가 된 이유는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평가들이 교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문분야별 전국 대학평가는 발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에서 KCI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현주 소리는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다. 전국 대학평가 순위는 먼저 상위 100위 이내 학문분야에 영향력을 주는 교수들의 지표를 만들고, 이후 그 지표로 대학교 간의 순위를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는 지난 9월 23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실리며 대학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교의 경우 행정학과 역사학이 서울대학교보다 우위에 있어 이번 발표가 주는 의의가 크다.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학술지를 대상으로 인용 통계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정보서비스이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순위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역사학	교육학	한국어와 문학
1	부산대학교	대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2	충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주대학교	서울대학교
3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인하대학교
4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5	경성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인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6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	창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7	청주대학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8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서강대학교
9	성신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원광대학교
10	한국조세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대학교	국민대학교	원광대학교	경북대학교
11	신문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12	대구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13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전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인동대학교
14	호서대학교	한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위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15	경북대학교	경기개발연구원	제주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	한림대학교	부산대학교
16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아주대학교
17	서강대학교	국민대학교	한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8	동아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성대학교	목포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19	한국항공대학교	신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	성균관대학교	상지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 학문분야별 대학교 순위 20위를 나타낸 표이다.

**지면 안내**

- 2 본교 면학정학생 근무여권 변화
- 3 스펙만으로 부족한 취업
- 5 최동진 감정평가사를 만나다
- 6 대한민국에만 있는 '탐정'을 말하다
- 7 그들의 희망이 담긴 의식팔지

**사 령**

- 임 수습기자 박상희 (무역 1) 손민호 (정통 1)
- 면 정기자 김서현 (의생활 1)

## 흰 종이를 검은색으로 물들여라

-기 드 노파상

### 제28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접 수 : 9월 16일(월) ~ 11월 1일(금)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 자유  
 제출형식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5면 이상)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 1별관(우편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 신문사  
 발 표 : 12월 2일(월)  
 시상내역 :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 시 - 40만원 및 상패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고 결봉에 한성문학상 응모작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은 12월 2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제 484호에 게재됩니다.  
 ※ 문의사항은 02) 760-4186(신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달라진 교내 면학장학생의 근무여건

## ‘근로시간 단축’ ‘시급인상’ ‘후불제 시행’돼

우리 학교의 근로학생은 면학장학생과 국가근로장학생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면학장학생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장학금 지급 방법이 변경됐다. 우리 학교의 면학장학생은 소위 ‘일반근로학생’이라고 불리며 교내의 행정부서나 각 과 행정사무실에서 학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학생이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근로 학생이 되길 희망한다.

면학장학생의 근무여건은 지난 학기와 비교해 두 가지 점이 달라졌다. 첫 번째 달라진 점은 1학기에 비해 근로 시간이 감소하고 시급이 인상됐다는 것이다. 김지호(학생지원팀) 주임은 “이번에 시간당 장학금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했다. 예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 면학장학생의 근로 시간을 조절했다”고 답했다. 그 전부터 우리 학교는 최소임금보다 낮은 근로 학생들의 시급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은 이번 학기부터 시급 기준을 최소임금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장학금 지급이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 이유에 대해 김지호 주임은 “원래 학기 중 면학장학생 장학금은 선지급이었다. 하지만 장학

금을 먼저 지급받으니 학생들이 업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통제 방법이 거의 없었다. 또한 학생들도 불성실한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설지원팀에서 면학장학생으로서 일하고 있는 방예은(무역 2) 학생은 “장학금이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 장학금을 늦게 지급받으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고 바뀐 장학금 지급방식에 대해 말했다.

한편,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로 나누어진다. 교내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부서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은 면학장학생과 달리 장학금이 달마다 지급된다. 교내근로는 국비가 80%, 교비가 20%로 지원되며 교외

근로는 국비가 90%, 교비가 10%로 부담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는 어떨까?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는 국가근로장학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성신여자대학교는 우리 학교의 면학장학생제도와 같은 인턴십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 인턴십 A장학금과 인턴십 B

### 시간당 장학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고

### 근로시간 줄어들어

장학금 지급방식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바뀌어

장학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학금은 각기 다르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부서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향후 학교 측은 이번 학기 근로학생의 배정인원은 284명이지만 장애우학생 도우미 등 필요에 의해 근로학생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정은 기자 hj6757@hansung.ac.kr



(일러스트 이예림)

	면학 장학생	국가 근로 장학생	
		교내근로	교외근로
근무부서	교내 행정부서 각 과 행정사무실	학술정보관 학생지원팀	창업보육센터 성북문화원
시급	5,000원	6,000원	8,000원
근무시간	행정부서 : 일 3시간 주 15시간 총 225시간 과사무실 : 일 2시간에서 3시간, 주 12시간, 총 180시간	하루 4시간 주 20시간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선발방법	각 부서나 과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	국가근로장학생을 신청한 지에 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순위가 정해져서 내려옴	

## 제9회 공학경진대회 성공리에 마쳐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9회 공학경진대회’가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37점의 작품과 2편의 논문이 출품됐다. 공학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애플리케이션, 로봇, 웹컨텐츠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개회식에서 강신일 총장은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낸 아이디어와 작품들은 향후 전문인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새로운 점은 삼성 전자, LG디스플레이, GS건설 등 총 10개의 협찬사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강신일 총장이 추진 중인 산학협력대학의 활동 중 하나

이다. 대회 이틀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금상, 동상, 협찬상 등 많은 학생들이 상을 수여받았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Time-lapse dolly 설계’를 출품한 김승민(기계 4), 김흥일(기계 4), 전승우(기계 4), 황정길(기계 4) 네 명의 학생이 대상 수상했다. 황정길 학생은 “친구들 모두 4학년이라 마지막 공학경진대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상을 받을 줄 몰랐다. 같이 준비한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신동석 기자 1236067@naver.com

## 학교식당 ‘Break time’ 확인하고 이용해야

코트 이름	운영 시간	
오텍	중식:11:00~15:30	
옛향	석식:17:00~19:00	<전체적인 운영시간> 중식 : 11:00~15:30 석식 : 17:00~19:00 *중식 시간은 각 코트별로 다름
가스아	11:00~15:00	
덜고볶고&사리아	11:00~15:00	
센트(카페)	9:30~18:30	

### ▲ 학식업체 운영시간표

학교식당업체(이하 학식업체)가 변경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학기 초 새로운 업체의 식당 운영방법이 기존 업체와 몇가지가 달라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가장 크게 혼란을 느낀 점은 중식과 석식 사이인 1시간 30분의 쉬는 시간이 학교식당 이용이 제한된 것이다.

현재 학교식당은 중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석식이 운영된다. 쉬는 시간인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는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찾는 학생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은솔(구내식당) 영양사는 “한식의 경우에는 중식과 석식의 메뉴가 각각 다르다. 석식의 조리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중간에 필요하다. 만약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석식 시간에는 한식 이외에도 전체 메뉴 중 하나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메뉴는 날마다 다르다.

이은솔 영양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이 학식업체가 바뀐 것을 알지 못했다. 전 학식업체와 달라진 점이 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웠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복지위원회와 상의해 개선해 나아갈 사항들에 대해 계속 대화중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식업체의 바뀐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길 당부한다.

현정은 기자 hj6757@hansung.ac.kr

### 간주린소식

## 독감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성대학교 학생(졸업생 포함) 및 교직원(교수, 직원, 조교)을 대상으로 이항에가정의학과-정형외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학생은 학생증을 교직원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1만 4천원에 접종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접종비용 3만원을 내게 된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2011년 07년 01일 공표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시행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관후관(건강관리실) 주임은 “독감은 9월부터 2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9월과 10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인과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독감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예방접종 외에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은 몸에 들어 온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있다”고 전했다.

독감 예방접종 외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역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공지를 참조하거나 건강관리실(760-4236), 이항에가정의학과-정형외과(591-3444)로 문의하면 된다.

## 제6회 한성대 영상제 참가자 모집해

한성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주관하는 제6회 한성대 영상제 참가자 모집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출품작품 작품은 11월 11일에 개별 연락 및 학교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다.

작품 주제는 자유이다. 작품형식은 15분 이하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등 다양하게 지원가능하다. DVD에 파일 형태로 본교 우편 또는 이메일(hansung\_uv@naver.com)을 통해 출품하면 된다.

강보경(교양학부) 조교는 “한성대 영상제는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를 맞이한다. 대회 4회까지는 한성대 재학생만 참가할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진취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출품작 중 10팀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며 해당 참가팀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행사 참가자 중 행정상 추천도 진행될 것이다. 대회 심사는 안건형, 전윤수 감독이 한다.

## 하계디즈니 인턴쉽 설명회 진행예정

오는 10월 11일 미래관 DLC에서 하계디즈니 인턴쉽(FSU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인턴쉽 프로그램의 선발자는 Florida State University(이하 FSU)에서 10일동안 Hospitality management를 12학점 이수한 후 6개월을 Walt Disney world resort에서 인턴쉽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Walt Disney world resort에서 활동하는 동안 FSU에서 3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다.

정가영(학사지원팀) 담당자는 “이번 디즈니 인턴쉽은 FSU와 한성대학교, 디즈니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만큼 해외에서 인턴을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이 라면 이번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FSU의 담당자분이 한국에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는 만큼 FSU교육과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 1번창구 (760-5567)에 문의하면 된다.

### 동 정 란

정성훈 (정보통신학과) 교수 정 교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기정전용량 방식의 TSP에서 멀티터치 인식 및 추적」 논문을 발표한다.

##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대 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서약접수 :**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 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 경제력도 스펙이다, 취업 사교육 열풍

##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던 사교육, 취업위해 계속 돼

지금 하반기 공채가 한창이다. 올 하반기 공채 경쟁률은 역대 최대인원인 8만여 명이 지원한 지난해 하반기 경쟁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사상최고 수준의 입사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접수 마감일에 접수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삼성은 당초 6~7만 여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류접수 마감한 결과 10만여 명의 지원자가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의 문턱은 높고 자리가 좁아든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많은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이 사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 붓고 있다. 어학성적과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학원을 찾는 것은 기본이다. 각 기업마다 거쳐야 하는 인·적성 검사와 각종 공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영상강의와 과외 같은 사교육은 옵션이다. 입사 시험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원할 경우 시간적·비용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취업준비생 A(이명)씨는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 돈이 들더라도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자주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해서 취업컨설팅의 면접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어학점수와 다양한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컨설팅업체를 찾고 있다.



1등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격렬한 레이스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 영화 <세일간이> 중 극중 인물 라주의 면접장면이다.

지원 서류작성부터 모의면접까지 과외를 받는 취준생들의 모습은 흡사 대학입시 수험생과 닮아있다.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고 합격했을 경우 별도의 합격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불합격 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환불해주는 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방영환(김정우의 취업컨설팅) 컨설턴트는 “취업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백퍼센트 좋은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

지만 이러한 컨설팅은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분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59.3%로 2명중 1명은 ‘취업제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학벌, 학점, 어학점수, 봉사활동·수상 실적과 같은 스펙만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일각에서는 ‘취업 양극화’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다. 경제력이 곧 스펙이고 이

러한 스펙이 곧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유상일(취업 포털 스펙업 운영자) 씨는 “취업문제에 대해 정부·기업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 사교육 시장의 성장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각 대학별 취업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티에 참여해 다른 취준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재원 기자 123647@hansung.ac.kr

### 지구촌 이슈

## 헬싱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도시로 뽑혀

최근 미국 월간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도시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런던, 뉴욕 등 16개국의 주요 도시 길거리에 50달러가 든 지갑을 도시별로 12차례씩 떨어뜨리고 회수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험 결과 핀란드의 헬싱키가 총 11번의 회수율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인도의 뭍바이는 9번의 회수를 기록했다. 가장 회수율이 낮은 도시는 포르투갈

의 리스본으로 회수가 1번에 그쳤다. 한편 인도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스위스의 취리히는 4번의 회수결과를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과 지갑 회수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측은 “이번 실험으로 도시의 경제력, 성별, 나이 등이 지갑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미국 뉴욕이 8회로 3위, 독일의 베를린에 6회로 7위, 영국 런던이 5회로 9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은 실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지난 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해군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13명이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미연방수사국(FBI)는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범행 현장 화면을 공개했다. 벨레리 펠라브(FBI 워싱턴D.C. 지부장)는 “피의자는 평소 자신이 극저주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이 아

닌 정신질환자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인 아론 알렉시스(34)는 해군 상근 예비역 군인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는 해병대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의 계약직원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 주부터 사건이 일어난 기지에서 근무를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민간인 직원 12명이 숨졌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 ‘도로명주소정책’에 대한 인식,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은 변경된 도로명주소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도로명주소’란 편리성을 위해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지정하

는 주소체계를 뜻한다. 정부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을 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변경된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이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 인식조사를 위해 지난 6월 전국 17개 시, 도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34.6%만이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조사결과보다 21%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정확히 모른다’라는 비율이 65.4%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다소 미미한 수준이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전환신청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우편물 운송이 잦은 온라인 쇼핑, 케이블 TV 등 민간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

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다. 길을 찾을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본 경험자는 7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23.4%에 불과했다. 우편물, 택배, 고지서 등을 받을 때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받아냈다는 응답도 54.3% 정도였다.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달 안전행정부는 우편물 발송양이 많은 주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처리할 때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132개 업체 중에서 고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한 비율은 14%로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조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윤지은 기자 yoonjoon@hansung.ac.kr

##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테러사건 발생해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무차별 테러가 발생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의 테러공격으로 시민 6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격자 찰스 카라나는 “무장괴한들은 ‘무슬림은 살려주었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이슬람교도인지 확인한 후 이날 경우 사살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케냐 정부는 연설을 통해 쇼핑몰터 인질사태가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나이로비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진압작전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테러범 5명이 사살됐고 11명은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진압이 종료됨에 따라 케냐 정부는 사건의 진

상 파악 및 테러 주도세력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총격테러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알 사바브(소말리아 무장단체)의 최고지도자 아흐메드 압디는 급진 이슬람주의 웹사이트를 통해 음성 성명을 남겼다. 아흐메드 압디는 “이번 사건은 서방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서방국들은 소말리아를 침략한 케냐를 지지하고, 자국의 석유회사 이익을 위해 무슬림들이 피를 흘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알 사바브는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쇼핑몰사건은 공인 1막의 초연일 뿐이다”는 글을 게시해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은 케냐가 소말리아에서 병력을 즉각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 스때 그 사건

## 성철스님 법어

성철스님의 조계종 종정 취임 법어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구 해인사 백련암에서 수행을 하던 스님이 종정이 되어 1981년 1월 20일 내린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은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에 때가 묻으면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

사실 불교는 중국을 통해 신라로 건너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있다. 일단 한문을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는 스님들은 한문으로 된 내용을 설법에 인용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경제개발이 목표가 된 정치적·경제적 시대상황에서 산 속 깊이 들어앉아 현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당시 통치타, 장

발, 디스크, 참바지 세대에게는 그리와 닿지도 않았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새로 지은 멋진 건물에서 일요일이면 모여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지내는 다른 종교가 더 접근하기가 쉬웠다. 조계사가 자리한 서울 종로도 중심가이기엔 하지만 분규로 각목, 짐가 사태가 이어져 사회면을 장식했고, 종교가 범죄인의 세탁 장소로 이용되고 교투리를 잡혀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중 산 속에서 수행하던 성철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을 내리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후 성철스님의 사월초파일 법어, 신년법어 역시 언론의 관심을 끌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또 성철스님이 한 말은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1967년 해인사 백일법문에서 했다는 “달을 볼 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목표는 달이지, 손가락에 있지 않다”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보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가라는 말이다. 불교경전에 있는 말이라고 한다.

성철스님은 원래 공부하면서 한국 불교의 맥을 잇고 있던 분이였다. 1947년 문경 봉암사 결사를 통해 스님들이 스스로 일하고, 회색빛 무명 가사를 입는 등등 지금 우리가 보는 절 모습의 뼈대를 이미 만들었고, 아인슈타인, 칸트, 영문 잡지를 산 중에서 읽었으며, 수행할 때는 절조망을 치고 생활하는가 하면, 해인사로와서는 선원, 강원 등을 갖추고 해인사 방장으로서 스님들을 엄하게 교육시켰다. 본인은 술 등 생식을 했다고 한다. 권력자들에게도 절 3천 배를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규칙을 똑같이 적용했다.

입적했을 때 남긴 물건으로는 깨끗이 빨아서 입었다는 누더기 한 벌 사신이 신문에 실렸다. 성철스님 홈페이지(<http://www.sungchol.org>)에 가면 생전의 모습과 법문하

는 동영상도 볼 수 있다. 성철스님 종정 취임법어 앞부분은 이렇다.

원각(圓覺)이 보조(普照)하니 / 적(寂)과 멸(滅)이 둘이 아니라 /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 아아, 사회대중(時會大衆)은 알겠는가?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석: 부처님의 깨달음 사방에 두루 비추니 / 적(寂)과 멸(滅)이 둘이 아니라 /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 아아, 법회에 오신 사람은 알겠는가?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혜전(칼럼니스트)

### 낙산만평

안의영 (애니 4)

# 열린 마음으로 남을 배우기: “지피지기”의 실천



교단에서

박 우  
(교양학부 조교수)

강단에서 중국사회 일반에 대한 강의를 한 지 여덟째 학기에 접어들었다. 학기마다 조금이나마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 해 주고자, 변화하는 중국의 면면을 항상 체크하곤 한다.

중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중국에 갈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갑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동시에 간직하고 돌아온다.

내가 매번 찾아 가는 곳은, 북경의 중국국가도서관과 국가박물관이다. 물론 웅만한 도서관에는 모두 크고 작은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지만 국가도서관과 국가박물관은 그 규모나, 상징성에 있어서 독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몇년전 자료수집차 중국국가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 건물의 일부가 개보수에 들어가 부분적인 공간만 이용 가능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입관하고 보니, 그렇게 넓은 공간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계단이나 복도, 그리고 모퉁이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20대~30대가 거의 90% 이상 이었고, 나머지 10%는 30대 이상이었다. 개

관 시간대에 따라 입관한 사람들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한국 내의 그 어떠한 공공립 도서관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다. 나는 도서관 일부가 개보수에 들어가다보니 사람들이 한 곳으로 너무 몰리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몇 년 동안 나는 계속 이 곳을 찾았다. 당시 개보수에 들어갔던 공간도 서서히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장서 및 열람의 기능을 사회에 오픈했다. 그런데 공간은 커졌지만 방문한 사람들의 밀도와 연령대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국가박물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천안문 광장의 한 켠에 거대한 규모로 건설된 국가박물관은 말 그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남아있던 문물들의 집결지이다. 박물관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인 원리나 이론은 차치하고,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 존재의 이유를 실감나게 한다. 매번 박물관에 가면서 느낀 것은 전시하는 문물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박물관을 찾아온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여름, 평통타워에도 나는 박물관에 갔는

데,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부터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의아해졌다. 알고보니 이 사람들 모두 박물관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30분 넘게 기다려서야 나는 입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지욕(求知欲)에 불타 책의 세계에서 지혜를 수집하고, 국가의 근간이 될 역사를 접하고자 무더위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항상 언론을 통해 중국의 부정적인 기사를 접한다. 천륜을 깨는 몰상식한 인간들이나, 타국의 범죄자와 문화를 무시하는 무지막직한 인간들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대륙의 000”이나, 이들 모두 한국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창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이런 역사가 누적되었기에 오랜 세월 동안 지역 맹주로 헤게모니를 행사했던 중국의 문화적 패권이 가능했다.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써 “지피지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열심히,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공부하고 나 자신을 알도록 노력하자.

## · 사 설 ·

### 한글날, 공휴일!

1991년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올해가 처음인지는 아직 공휴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어떤 달력에는 공휴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게 된 첫째 이유는 한글 운동 관계자나 한국어학자들이 줄기차게 관련 부처에 청원한 결과이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달라는 청원은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님으로써 한글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세계보는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누구나 한글날을 의미 있게 기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언론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까닭은 한글의 정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였기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한글 없는 세상을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 그만큼 한글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20세기를 마감하기 전 최근 천년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는 설문이 있었다. 각계의 권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마지막 고심 끝에 선정된 인물은 구텐베르크였다. 이유는 단순하게도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없었다면 구텐베르크와 경쟁했던 갈릴레오도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현대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인쇄 기술의 혁명이 의미하는 바는 정보의 빠른 확산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서양보다 200년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민족의 경우는 어떠한가? 과거 유산에 대한 자긍심은 있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

지는 못했다. 즉 우리의 금속활자는 정보의 확산과 무관한 이유에서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꼽으려면 단연권대 세종대왕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배우기 쉽다는 점이다. 고도의 과학적 배려는 차치하고 민족의 역사에서 한글이 가지는 의미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한글 창제 이래로 한글이 나라 글자의 대접을 못 받은 가운데서도 한글은 억압받는 자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살아남았다. 한글이 없었다면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의 문자 생활이 어떠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세계의 역사에서 피정복민이 정복민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자주 목도하기 때문이다.

한글은 또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결정 한 주요 요소이다. 한국이 단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고급인력을 풍부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교육열도 한몫 했겠지만 한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과정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모른다. 더구나 21세기의 정보사회는 세종대왕이 그토록 꿈꿔왔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정보격차 해소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한글을 기반으로 고도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하고 있다. 한글이 공휴일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화가 한글이기 때문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이 지향하는 정보평등사회야말로 다시 공휴일이 되는 한글날에 되새겨야 하는 한글날의 진정한 의미이다.

### 그들만의 체전

몇 주 사이 후텁지근했던 날이 선선해졌다. 가을을 알리는 추석도 지나갔다. 체전은 열리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우리학교는 이번 2학기에 축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총학 측에서도 체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겠다 말할 바가 있다. 이번 체전 때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열겠다는 것이다.

체전이 주는 여감 때문일까, 학생들은 축제에 비해 체전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언제 열리는지 모르거나 그저 운동장이 평소보다 시끌벅적하면 ‘체전이 열리는구나’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체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학생회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이 대다수 학교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체전에 참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까? 체전에 참여하려면 부득이하게 강의를 빼쳐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때 교수님이 공문을 받아주신다면 출석인정이 되겠지만,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결석처리된다. 이러한 부담감과 더불어 체전은 과 생활을 하는 자들의 전유물이라 느껴지는 것도 있다. 물론 과 생활을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어쩐지 참여하러니 어색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마음도 생길 터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체전에 관심을 가진다면 체전의 참여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생회 측의 역할도 요구된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모책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총학에서 이번 체전에 시도할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은 바이다. 이 이벤트로 체전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바이다.

## 터지는 열애설, 묻히는 정치



기자수첩

박상희 수습기자  
(무역 1)

지난 9월, 하루에 열애설 기사가 3개나 터졌다. 천정명, 설리와 최자, 오종혁과 소연이 그 주인공이다. 어딘가에 남성팬 혹은 여성팬들이 분노했겠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열애설이 터진 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음모론은 국가정치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정부가 강력한 열애설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치적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설이다. 이번에는 기초연급 공약의 공식 파기선언이 대두되었다.

음모론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해 왔다. 7월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때도 원빈과

이나영, 박지성, 서태지 등의 열애설이 불거진 적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었다.

이 음모론이 사실이면 아니든 열애설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묻히는 현상이 있음은 분명하다. 연명대마다 다르겠지만 본 기자는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한숨이 나오는 정치 사회면보다는 가십거리로 즐길 수 있고 화려한 연예면에 마우스가 이동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음모론을 접했을 때 참 거짓을 따지기 보다는 열애설과 동시에 터진 정치적 사건이 무엇이길래라는 생각에, 정치면 기

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가십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계기와 의지를 가져다 준 셈이다.

장진갑감독은 트위터에 연일 터지는 열애설에 묻히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아쉬워했다. 우리도 한 사회의 정치적 구성원으로서 연예 기사에 치우치지 않고 연예와 정치 분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열애설이 실시간 검색 1위라면 수면 밑에 감춰진 정치의 이면도 함께 생각해 봐야 구성원으로서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 글쓰기, 이제 시작할 때



낙산에 올라

윤호석  
(경제 3)

최근 들어 글쓰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가르고 대학교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만 봐도 글쓰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글쓰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발달로 인해 편지를 잘 안 쓰게 되어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게 된 것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많은 방법이 있겠

지만, 나는 베껴 쓰기와 단어 채집을 추천한다.

베껴 쓰기란 말 그대로 글을 베껴 쓰는 것이다. 소설이든 수필이든 장르는 상관없다. ‘좋은’ 글을 베껴 쓰면서 그 글을 쓴 작가가 글을 써나가는 방식이 ‘체화’되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좋은 어휘와 문장들이 내 것이 되어 내 글을 쓰는 힘이 향상된다.

단어 채집이란 단어를 모으는 것이다. 단어를 채집하여 단어의 정확한 뜻과 속성, 특징 등을 제대로 알아야 글을 쓸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를 채집하여 ‘바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그의 저서 ‘글쓰기의 공중분양’이라는 책에서 ‘체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을 튼튼하게 세워야 하듯이 글쓰기를 잘하려면 기본이 되는 단어부터 챙겨야 한다.’며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하여 단어채집을 강조한다.

나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는 판국에 글쓰기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자니 많이 속스럽다. 글쓰기가 두려운 우리! 지금은 글쓰기가 두렵지만, 베껴 쓰기와 단어채집을 통해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의 조엔 k 롤리가 되어있지는 않을까?

# 공모전 소식



###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2013 광고 이미지 공모전

**공모주제** : 과학문화 확산과 KERI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디자인 공모  
**공모기간** : 2013년 10월 1일~10월 9일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분야** : 인쇄광고  
**응모방법** : 공모전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맞춰 출력본 업로드 (JPG또는 PDF파일 20MB,300dpi이상)/사이즈 5단 통 광고(5단 21cm 또는 A4사이즈)  
**상금** : 대상(일반 1명/학생 1명): 상장 및 부상 각 100만원  
우수상(공통 4명):상장 및 부상 각 50만원  
장려상(공통 5명): 상장 및 부상 각 20만원

### 제11회 LH대학생 광고 공모전

**공모주제** :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LH이미지  
**공모기간** : 2013년 9월 30일 ~ 10월 15일  
**지원자격** :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생(휴학생 포함) 및 대학 원생 학생은행계 전문대학 포함  
**공모분야** : TV광고, 인쇄광고, 로고송 부문  
**시상내역** : 대상/부문 공통 1점/ 상장,상패, 장학금 500만원  
금상/점/부문 공통 1점/ 상장, 상패, 장학금 300만원  
은상 3점/각부문별점/상장, 상패, 장학금 100만원  
동상 6점/각부문별 2점/상장,상패, 장학금 100만원  
장려상 20점/ 부문 공통 20점/ 상장 및 상품(20만원 상당)

### 산업단지공단 홍보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공모주제** : 한국 산업단지 공단에서 개발,분양 중인 산업단지를 널리 알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참신하고 반짝이는 캐치프레이즈로 투자유치 분양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문구 공모  
**공모대상** : 산업단지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학생 및 기업인 등 누구나  
**공모기간** : 2013년 9월16일~ 9월 25일 오후 6시까지  
**제출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 (1인당 3개 이내로 제한)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장려상 3명: 각 10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꿈의 대화

# 자신만이 감정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라

## 최동진 감정평가사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자리에 만나 이야기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  
꿈을 위해 공부할 때는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었다”  
”



▲ 정민재 멘티의 모습

이번 '꿈의 대화'는 감정평가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최동진 감정평가사를 멘토로 모셨다. 최동진 감정평가사는 한성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재직 중이다. 최동진 감정평가사는 우리 학교에서 최초의 감정평가사이다. 기자는 감정평가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정민재(부동산 4) 학생과 함께 그를 만났다.

정민재(이하 정): 감정평가사는 많은 물건들을 감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동진 감정평가사(이하 최): 감정평가사는 법에 의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평가해 화폐단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부터 무형자산까지 다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정: 평가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부동산을 가장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감정평가사가 만들어진 배경도 사실 90년대에 공시 업무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평가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크게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 최근 감정평가사 업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입니다. 법률이 통과돼서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의 공단화가 시행됩니다. 담보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은행에서 자체 감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2년 전에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소송이 판결났습니다. 만약 기업신뢰도가 높으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재 학생도 올해 2년차 감정평가

사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이다. 그래서인지 최동진 감정평가사에게 시험에 관련해 묻는 질문들이 많았다. 최동진 감정평가사 역시 힘든 고시 생활을 겪어왔기 때문에 성실히 질문에 답변 해주었다.

정: 저도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평가사님은 고시생 생활을 하시며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최: 감정평가사 공부를 4년 했지만, 시험에 자주 떨어져서 불안했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사에 합격했을 때가 30살이었는데 그 전까지 합격할 수 없다는 확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의 희망을 끝까지 잡고 자신감을 가지며 공부했습니다.

정: 저도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과목과 주력하는 과목이 있는데 평가사님이 주력하셨던 과목과 공부하셨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최: 회계고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렵고 자신없던 과목은 법규였지만 막상 시험 성적은 과목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다보니 다른 과목보다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규를 공부할 때에는 법률만 암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법과 사안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정: 감정평가사가 된 후에 추가적으로 무슨 자격증을 따두거나 무슨 학위를 수여받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컴퓨터 분야에 흥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점이 강점이



▲ 최동진 감정평가사의 모습

될까요?

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에 대해 공부하면 좋습니다. 수목이나 광산 등 특화한 것에 대해 자세히 아는 감정평가사들은 드뭅니다. 그 분야를 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의뢰가 들어와도 반려하지 않고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의 의뢰를 맡으려면 업계경력 10년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쪽을 잘 안다고 하시는 데 IT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평가사는 적으니 그 쪽으로 특화시키면 강점이 될 것 같네요.

정: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업계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 감정평가업계가 원하는 인재상은 꼭 짚어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엔 감정평가사들 비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점이 강점이

에 일종의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결국엔 사람들이 나한테 오히려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인터뷰에도 정민재 학생과 최동진 감정평가사는 진지한 자세로 질문과 대답을 했다. 정민재 학생은 "업계의 선배님을 만나 뵈

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었고, 현업에 대한 사정과 실무에 대한 의문을 다수 풀 수 있게 된 점이 뜻깊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멘토가 되어 신문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민재 학생이 감정평가사에 한걸음 더 다가갔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교직원을 만나다

## 한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 학생지원팀 전민호 주임을 만나다

### 사진이야기



어느 금요일, 주간수업이 끝나고 야간수업이 시작되는 때 항상 곱하게만 지나다니는 우천관람산다리에 서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본 시간이다.

송주영(영어영문 4)

교내의 장학금, 학생회 행사, 해외봉사, 한성 Success Frontier, 기숙사 등의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 많은 일들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나의 부서에서 이 많은 일들이 기획에서 운영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학생지원



▲ 학생지원팀의 전민호 주임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뒤로 하고 새 학기 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지금, 학생지원팀에 귀 기울여 보자.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유용한 교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직원 만나다'에서 기자는 학생지원팀의 전민호 주임과 만나 보았다.

학생지원팀은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교내 학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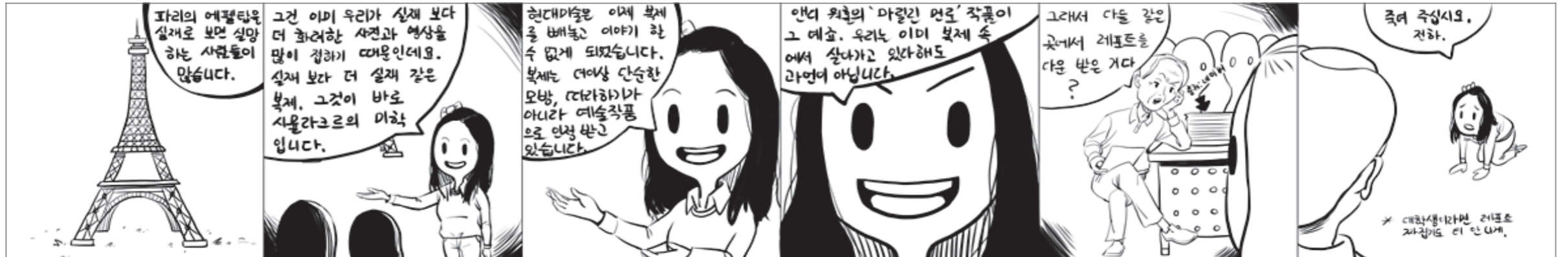
학사지원팀과 학생지원팀은 비슷한 명칭 때문에 헷갈음을 하기 일쑤이다. 전민호 주임은 학생지원팀을 찾는 학생들에게 "학생지원팀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내 전화번호를 묻는 사소한 것부터 타부서의 업무인 수강신청까지 학생지원팀의 업무인 줄 알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다. 학생들이 학생지원팀을 찾는 용무가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더라도 학교의 창구와 같이 쉽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민호 주임은 학생지원팀의 업무 중, 학생회를 지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충분한 수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참여하지만 전주임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면 한다. 대부분의 참여 학생이 이전 프로그램참여자들의 소개로 찾아온다"며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열릴 예정이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프로그램의 모집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타 부서의 교직원과 같이 전민호 주임도 프로그램의 모집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했다. 전민호 주임은 "개인 사정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 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학생들에게 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업무 이외에 전민호 주임은 매 방중에 운영되는 해외봉사에 부단장으로 약 20명의 학생을 인솔하기도 한다. 그는 "고된 해외봉사를 끝내고 인 천공항에 입국한 후, 보다 성숙하게 변한 학생들을 볼 때마다 교직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 탐정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탐정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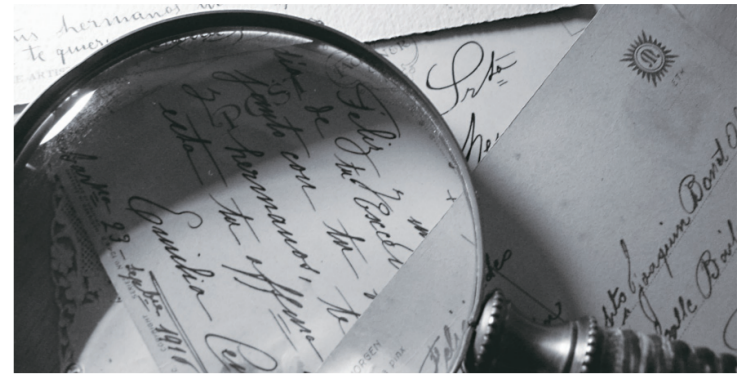


고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탐정도 있다. 탐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범죄를 소탕하거나 사건을 추리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전문가인 것이다. 탐정은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으로

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들을 '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강영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넘게 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심부름센터·홍신소가 '불법탐정'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다. 이러한 업체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에 대한 구제,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 공권력이 이를 전부

정부 역시 필요에 의해 외국의 탐정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국제탐정의 경우 해외탐정을 잡기 위해 현지 사설탐정이나 탐정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크롤(Kroll), 핀커톤(Pinkerton) 등의 외국 탐정 기업이 진출



## '민간조사원' 그들은 누구인가?

공인 탐정은 없지만, 우리도 탐정은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탐정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탐정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탐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다. 왜 탐정이 아니고 민간조사원일까? 그 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무는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단어의 상업적인 사용까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원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등을 수행한다. 실종 및 가출인 소재 파악, 교통사고 조사 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 스파이, 국제무역 분쟁 등에 대한 조사를 맡이기도 한다.

탐정법이 없다보니 민간조사원을 심부름센터·홍신소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부름센터·홍신소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위치추적·청부 상해 등 불법적인 활동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은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을 가진 자 등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관련업무 종사자들이다. 자격기반법에 의거한 평가를 거쳐 민간조사 전문가를 취득해 NGO단체, 보험사고조사팀, 법무법

인, 대기업 감사·조사 팀 등에서 활동한다.

아무래도 탐정법이 없다보니 민간조사원의 활동 역시 불법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민간조사협회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법제화되지 않으니 업무범위가 좁거나 불분명하고 민간조사원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영국·스웨덴·홍콩 등의 선진국에서 로펌, 컨설팅, 보안회사 등으로 한국에 진출해 법률서비스는 물론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탐정회사의 진출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간조사협회는 "거대한 자본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의 대형 탐정회사의 진출이 본격화 된다면 우리나라 민간조사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고 토로했다.

수없이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거듭하고 있는 탐정법,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권력적 사설행위의 조사업무를 대신할 서비스 제공자는 분명 필요하다. 민간조사원이 법적으로 공인되어 진정한 '탐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민간인이 이용하는 심부름센터, 정부와 기업이 이용하는 해외 탐정기업. 탐정을 필요로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인탐정'은 없다. ”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자격시험과 교육을 거쳐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규정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공인탐정의 경우 탐정회사를 설립해 활동 할 수도 있다. 또 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협조 역시 받을 수 있다. 일반 탐정은 국가자격 취득하지 않은 채 탐정회사 등에 소속되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한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신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을 대신해 자료를 수집한다. 탐정은 경찰·감찰과 같은 공권력과 민간인 사이에 존재하는 조력자인 것이다.

탐정이 하는 일은 분명 아주 현실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탐정을 떠올리면 소설·드라마와 같은 비현실속의 인물이 떠오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탐정이 없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탐정의 업무를 수행

대해 논란이 많았다. 관련 법안은 꾸준히 제출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탐정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탐정'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탐정과 비슷한 일을

도맡아하기에는 분명히 시간적·비용적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미아·실종인 찾기나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경찰이 지속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해결 사건 역시 그렇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셜록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국드라마(셜록)이다.

## 다락방 책꽂이

그들은 비와 함께 간다



『몽의 손은 붉게 물들고』 / 미치오 슈스케 / 은행나무

이야기는 비와 함께 시작된다. 렌과 가에네 남매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산다.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죽은 엄마, 렌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인 다쓰야와 초등학생 게이시케는 새엄마와 산다. 엄마의 죽음과 아버지의 재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건은 비와 함께 일어난다. 다쓰야는 새엄마 사토에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임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고를 치고 다니며 사토에를 애매한다. 한편 렌은 의붓아버지를 죽이고자한다. 동생 가에네에게 목숨 짓을 하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예까지 않게 현실이 되고 시체를 버리려던 두 남매는 다쓰야 형제와 맞닥뜨린다.

엇갈린 두 가족의 비극은 비가 오는 내내 계속된다. 그리고 밝혀지는 모든 사건의 진상들, 렌의 의붓아버지의 죽음은 진짜 렌의 잘못이었을까? 다쓰야의 친엄마의 죽음은 다쓰야의 생각처럼 새엄마 때문일까? 차라리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추리가 시작된다. 어떤 결말이든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 IT한 소식

# 스마트폰의 미래, 웨어러블로 진화할 수 있을까?

말거나 접어서 쓰는 스마트폰 3~4년 후에나 출시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갤럭시노트3', '갤럭시기어', '2세대 갤럭시노트10.1'을 각각 공개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갤럭시기어였다. 삼성전자는 이른바 '스마트시계' 범주에 속하는 갤럭시기어를 통해 그 동안 카피캣'이나 '패스트 팔로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적당한 아이템으로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막상 갤럭시기어가 시중에 출시되자 적지 않은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10월 3일자 기사에서 "나무를 쌓는다고 뽕나무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몰아넣는다고 일관성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삼성은 알게 될 것"이라고 혹평을 내렸다. 더구나 "아무도 이 시계를 사지 않을 것이며, 사서도 안 된다"며 신랄한 독설을 날렸다.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의신인 워싱턴포스트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갤럭시노트 3의 기능을 시계로 옮긴 것은 인상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갤럭시기어로 일부 내용을 볼 수 있다"며 "알림 기능을 적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기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좋은 싫던 과도기적 제품이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갤럭시기어가 공개된 직후 삼성전자 내부에서 갤럭시기어의 후속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

가 새어나왔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핵심 원인은 "어디서 그런 좋은 정보를 얻느냐"고 반문했을 정도다.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도 갤럭시기어를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만간 공개될 '플렉서블 스마트폰'이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폴딩이 되지 않는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10월 3일자 기사에서 "나무를 쌓는다고 뽕나무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몰아넣는다고 일관성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삼성은 알게 될 것"이라고 혹평을 내렸다. 더구나 "아무도 이 시계를 사지 않을 것이며, 사서도 안 된다"며 신랄한 독설을 날렸다.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의신인 워싱턴포스트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갤럭시노트 3의 기능을 시계로 옮긴 것은 인상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갤럭시기어로 일부 내용을 볼 수 있다"며 "알림 기능을 적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면을 사용자 마음대로 휘거나 구부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적이다. 먼저 기술적으로 플렉서블이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가 '엔브레이크',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밀봉과 커버는 관련 소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백플레인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리를 쓴다는 뜻. 말이 엔브레이크라지만 사용하다보면 깨질 수 있으니 사용자나 제조사 입장에서 별로 유리한 것이 없을 수 있다.

또한 화면이 휘어진다고 해서 디자

인적으로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면이 휘어지면 이와 연동되는 킬러 콘텐츠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애플이 스마트시계를 출시하려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가운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만 일부 설계할 수 있는 애플 입장에서 디스플레이를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혹은 사프전 자 등 외부 업체에 의존해야 하니 관련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전통적인 평판 디스플레이 구조를 가진 제품이 적어도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출시된다고 봐야 한다. 갤럭시기어나 이따금 출시될 플렉서블 스마트폰 등은 진정한 웨어러블 기기로 진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언제쯤 주머니에 넣어서 넣거나 접어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강화유리 및 기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빨라도 3~4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이전까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혁신은 여전히 평면적인 UI와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판기를 날 공산이 짙어졌다.

〈디지털데일리〉이수원 기자 shulee@ddaily.co.kr

##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 탄수화물섭취 적절한가?

한국의 밥상에는 밥이 기본이다. 이러한 한식의 특징은 탄수화물 과잉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 쌀이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한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다. 탄수화물 과잉섭취는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탄수화물의 영양섭취 기준을 총 에너지의 55-70% 수준에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의 45-6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왜 우리나라의 탄수화물 영양섭취기준은 미국보다 높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55-70이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 섭취율 상위 25%, 하위 25%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한국인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는 탄수화물의 에너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량의 탄수화물을 하루에 약 100g으로 본다. 그런데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289.1g의 탄수화물을 먹었다. 최소 필요량의 무려 3배를 먹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이

70% 이상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특히 80% 이상의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얻는 노인의 비율도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섭취 수준과 건강관련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제시된 55-70% 섭취한 그룹에 비해 혈압이 높고 혈중지질의 농도와 혈당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도 탄수화물을 70%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위주, 한식위주를 고집한 결과가 탄수화물 과잉섭취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도리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셈이다. 반면 55%이하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55%이상 먹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쌀 소비가 너무 줄어서 쌀 소비 캠페인까지 하는 마당에 무슨 곡이나 반분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피 단지 '쌀' 소비가 줄었을 뿐 전체 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289.1g의 탄수화물을 먹었다. 최소 필요량의 무려 3배를 먹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먹는 감자나 고구마, 토란, 연근, 팥, 옥수수 등은 모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목, 당면 등 녹말을 이용한 한식요리 역시 탄수화물이 대부분이다. 영양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에너지로 탄수화물 섭취비율이 높아지면 단백질은 비뚤어져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분석결과로부터 탄수화물 식품들의 영양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의 70%이상 섭취한 그룹은 칼슘, 철분을 비롯한 각종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55-70%그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각종 생활습관병 증가의 원인을 서구화된 식생활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상당부분은 탄수화물이 북병이다.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우리 몸을 저장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과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즐겨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거나 고지혈증인 경우 범인은 바로 탄수화물이다. 살을 빼려고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열심히 채식만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역시 탄수화물이 문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밥 중심의 한식이 있다.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탁 원장)

# 의식팔찌, 당신의 손목을 값지게 할 때

“ 사회가 외면한 사회문제에 의무팔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

최근 들어 '의식팔찌'를 통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의식팔찌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의식팔찌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후원팔찌, 기부팔찌가 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단체 혹은 이를 돕는 사업체가 의식팔찌를 제작·판매함으로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식팔찌 구매자와 단체의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인들과 자리에서, 평소 내가 호감을 갖던 A가 무심코 셔츠의 소매를 걸었다. 문득 그의 팔찌가 보인다. 이때, 당신은 그의 팔목에 어떤 팔찌가 매여 있었으면 하는가. 천만 원 대의 로렉스 시계면 만족하겠는가. 그의 팔목에 로렉스 시계 대신 의식팔찌는 어떤가.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들이 의식팔찌를 착용해, 그들의 이름 앞에 '개념 연예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개념을 가진 연예인이라는 것이다. 간단한 의식팔찌의 착용으로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것은 공인의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 당신 혹은 당신의 A가 의식팔찌를 착용함으로써 높은 개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팔찌의 종류는 참 다양하다. 해외의 경우 '유방암협회', '유니세프' 등 많은 단체에서 이미 의식팔찌를 보인 지 오래지만, 의식팔찌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의식팔찌인 희움·비커넥트·디어도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단체마다의 후원목표와 팔찌 디자인 등이 각기 다르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 그들과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 희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식팔찌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고려대학교 인엑터스 동아리가 만나 만든 브랜드로 작년 3월부터 의식팔찌를 판매하고 있다.

희움의 의식팔찌에는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란 문구가 새겨 있다. 이는 희움 팔찌의 착용은 시민모임과 한마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팔찌 하나의 가격은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희움은 이 조금의 후원금을 차곡차곡 모아, 최근 대구지역에 일본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희움 팔찌의 디자인은 깔끔한 실

리큰 소재의 팔찌로 보라, 연보라, 분홍, 연분홍, 검정, 흰색 등 다양한 색이 있다.

◇ 비커넥트  
비프렌드, 비워터, 비커넥트의 팔찌

모두 사랑의복지재단의 비(非)캠페인에 포함되어 판매된다. 세 팔찌브랜드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비프렌드 팔찌는 남아공의 결식아동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 비워터 팔찌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깨끗한 우물을 짓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 비커넥트 팔찌는 해외 빈곤 아동들에게 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뜻을 갖고 있다.

각 팔찌마다 모양과 특징도 다르다. 비프렌드와 비워터는 희움 팔찌와 같이 깔끔한 실리큰 소재

의 팔찌로 같은 가격이다. 반면 비커넥트는 면소재로 5500원이다. 다른 팔찌와 달리 비프렌드팔찌는 친구와 나누어 갖으라는 뜻이 더해져 2개의 팔찌가 들어 있다. 그리고 비워터는 여러 색이 있는 비프렌드 팔찌와 달리 한 가지색인 검정뿐이다.

◇ 디어도그  
디어도그 의식팔찌는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을 목표로 한다. '모리'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기획한 유기견 사랑 프로젝트로, 시작은 얼마 안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은 물론 '에이랜드', '스파이시컬러' 등 많은 오프라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우수한 질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특별한 점은 하나하나 손수 제작되기 때문에 가격은 15000원으로 값이 꽤 나가는 편이다. 디어도그의 수익금은 일부 유기견 보호소 설립 혹은 치료비용에 후원된다.

의식팔찌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참여율의 후원금 조달'도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팔찌 착용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얘기되었던 A의 팔찌가 의식팔찌였다면, 그를 향한 당신의 호감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단순히 멋을 내기보다 그는 멋을 내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좋지 못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문제,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에 속을 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매번 아픈 마음으로 그치는 것보다 문제해결의식에 동참하는 의식팔찌를 통해 그들의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아라.

오그림 기사 1233075@hansung.ac.kr



## 클래식을 여행하려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비발디의 Violin Concerto in A Minor RV356  
- 지하철 환승곡으로 쓰이고 있는 음악이다. 듣고 있으면 환승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비발디의 Cantate "Cessate, omai cessate" RV684 Aria "Ah ch'infelice sempre"  
-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메인테마곡으로도 쓰인 음악이다. 끊어질 듯이 이어지는 아리아가 인상 깊은 곡이다.

바흐의 'Cello Suite no.1'  
- 헨델의 'G선상의 아리아'만큼 유명한 곡이다. 편안한 첼로 소리에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헨델의 'Sarabande'  
- '사라방드'는 느린 무곡의 일종이다. 사라방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 헨델의 사라방드이다. 곡조에서 흘러나오는 느낌이 처연하다.

차이코프스키의 Piano Concerto No.1 Op. 23  
- 곡의 도입부부터 탄성이 나올 것이다.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의 웅장함은 당신의 가슴을 울릴 것이다.

라흐마니노프의 Piano Concerto No. 2  
-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를 봤다면 익숙한 음악일 것이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서도 나왔기도 하고, 라흐마니노프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하니 들어봐도 좋을 것이다.

칼 오르프의 'O Fortuna'  
-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제목을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웅장하고 강렬한 합창곡인 이 곡은 다양한 광고나 영화에 삽입되었다.

이제는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기에 어쩐지 부담스러운 날씨가 되었다. 날도 어쩐지 공허하고 가슴 한구석도 시린 것이 마음을 살찌울 계절이 왔나보다. 그만큼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싶다.

이런 가을, 클래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막상 들으려하니 무얼 들어야 할지 막막하지 않은가? 왜 이리도 음악가들은 많고, 제목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Violin concerto A minor BWV1041'이런 제목만 봐도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다. 이런 정신을 위해 준비했다.

클래식, 뭐부터 들어야 할까? 클래식에서 뭐부터 들어야 한다. 이런 거는 별달리 없다. 하지만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제일 귀에 익은 음악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생각보다 클래식이 많이 쓰인다. TV 광고와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안내방송 배경음, 통화 연결음, 그리고 지하철 환승 음악까지도. 이런 곳에서 들은 음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신의 취향과 맞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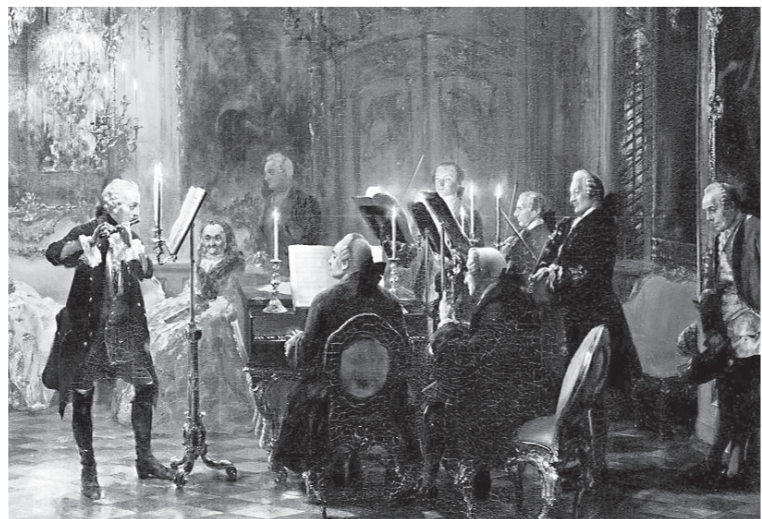
대의 음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는 주로 고전파의 모차르트나 베토벤, 낭만파의 쇼팽을 즐겨듣는다고 하니 참고 해봐도 좋을 법하다.

계속 듣다보면 좋아하는 시대의 음악가가 생기기 마련이다. 음악가까진 안 생기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곡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연주자의 곡들을 들어보자. 모든 연주자가 곡을 모두 친필통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곡 해석에 따라 연주자의 느낌과 방식이 달라지니 이를 두고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클래식 감상을 즐기는 김지혜(24, 대학생)씨는 "클래식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졌으면 좋겠다. 그저 옛날사람들이 즐겨들은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클래식은 돈 많은 사람들의 고상한 취미도 아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점점 날이 차가워지고 있다. 이러한 요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커피 한잔과 클래식을 함께하는 것은 어떨겠는가?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 당신은 '그 광고'를 왜 기억하고 있는가?



문화읽어주는 기자 윤지은

혹시 기억 속 한켠에 자리 잡아 잊혀지지 않는 광고가 있는가? 누구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광고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광고'를 왜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해당광고에 당시의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광고는 시대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다. 인터넷이 비활성화 되었던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때 회사를 중시하거나 광고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그 당시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보다는 이미지 확보를 위한 광고를 주로 제작했었다. 대부분의 광고에 당시의 대세 연예인이 등장해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그치는 정도였다. 광고의 주인공인 제품보다는 연예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태도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최근 소비자들 중에는 제품을 선택할 때 회사명을 중시하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목한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아섰다. 이는 광고계의 변화를 몰고 왔다. 변화된 소비자들의 모습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광고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로 유니클로와 애플의 광고를 들 수 있겠다. 두 회사의 광고에는 제품인 '주(主)'가 되어 등장한다. 광고의 흐름이 제품의 특징과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의 예를 통해 예전과 요즘의 광고형태를 비교해보면 변화가 조금 더 명확히 보일 것이다. 화장품광고를 떠올려보자.

예전에는 화장품광고를 유명여배우가 등장해 해당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그 여배우처럼 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준 채 광고가 끝나곤 했다. 광고를 보고나면 해당 제품보다는 여배우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요즘 화장품광고에도 미모의 여자연예인이 등장하긴 한다. 하지만 마냥 환상을 심어주기 보단 제품의 성분, 특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주변의 무수한 것들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광고인 것이다. 이제 '광고'는 기업의 매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소비자들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광고에 어떤 시대적 변화 요소가 등장할지 궁금증이 드는 한편, 소비자들의 기억 속 남게 될 광고로는 어떤 광고가 등장할지 기대가 된다.

“ 광고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

# 군인들이 사는 세상

오그림 기자  
현정은 기자  
김근영 기자



### 육군

지상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군대를 말한다. 육군은 지상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고, 지역을 탈취 또는 확보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여 지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육군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공수 또는 공중기동작전을 수행한다.

- 슬로건: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 복무기간: 21개월
- 모집기간: 매월 10일 전후부터 익월10일 까지

### 해군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해병대 역시 해군에 속한다.

- 슬로건: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모집: 해군은 모집 시 '유급지원병'과 '일반기술병'으로 나눠서 선발한다.
- 복무기간: 유급지원병-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함. 일반 기술병-21개월 (단, 해병대 일반기술병은 21개월)

### 공군

공중을 활동무대로 하여 항공기를 주요 무기로 사용한다. 좁은 의미에서 육군·해군에 속하는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로 편성된다.

- 슬로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 복무기간: 24개월
- 복무기간: 매달 초순마다
- 장점: 다른 국군(육군,해군)들의 비해 휴가와 외박이 많고 훈련과 작업이 많지 않다.

### 의무경찰(이하 의경)

의무전투 경찰 순경으로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복무 기간: 21개월
- 장점: 희망일 입영제, 지인 3명까지 동반 입대 가능, 연고지 배치, 정기휴가와 2개월마다의 3박 4일 정가외박, 주2회 휴무, 전역 시 경찰관 특별채용 기회 부여, 복무 중 자기계발 기회 보장.
- 특징: 재 지원가능, (키 165cm 이상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무난한 신체검사 기준

###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 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에 관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이다.

- 복무 분야: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 복무기간: 행정관서 요원부터 차례대로 24개월, 30개월, 34개월
- 장점: 자가 숙식이 가능하며 출퇴근 근무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 1일 제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서울공항부터 광화문 일대 구간에서 시간행진이 진행되었다. 우리의 주위에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학우들이 있다. 국군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누군가에게는 군인 동생이고, 누군가에게는 군인 아버지일 것이다. 군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군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들여보자.

〈편집자주〉

## 아버지 세대 군대와 현재의 군대, 무엇이 달라졌을까?

당신은 아버지의 군대일화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디 한번 본적이 있는가? 아무리 했던 이야기라도 끝없이 하게 되는 것이 군대일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복무하셨을 적 군대는 지금 군대와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 비록 군대는 보수적인 특성상 변화라는 단어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집단이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군대에도 세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흔히 말씀하신다. "그래도 요즘은 군대는 잠깐이지 않냐. 얼른 다녀와라"라고. 그러면 아들들은 입을 삐죽 내밀기 일쑤이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어떻게 잠깐이냐고. 하지만 아버지 세대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아버지 세대 군대와 아들 세대 군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바로 '복무기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6.25직후, 육?해?공군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이후 점차 단축되기는 했으나 1992년까지는 육?해?공군 모두 복무기간이 30개월 이상이었다. 군 복무기간은 '121사태'로 인해 잠시 연장되었던 경우만 제외하면 지금까지 꾸준히 단축되고 있다. 현재는 21~24개월로 30개월 이상을 복무한 아버지들의 시각에서는 그야말로 '잠깐'인 셈이다.

아버지 세대의 '내무반'은 '생활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변경을 넘어 보다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종전엔 내무반은 병사들이 전시에 잠깐 머물다가는 공간을 의미했다. 하지만 생활관은 이름 그대로 사병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내무반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생활관은 별도의 침대와 탁자를 갖추고 보다 넓어졌다.

또한 아버지 세대는 내무반에서 선?후임들이 함께 생활했다. 그 당시 내무반의 일상적인 풍경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바로 국방부가 '동기생활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동기생활관 제도란, 중대 내에 입대 동기나 비슷한 계급을 가진 사병끼리 같은 생활관에 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전군의 51.6%인 880개 부대에서 동기생활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버지 세대에 공공연히 행해졌던 구타도 많이 사라졌다. 1990년까지만 해도 '군인복무규율'에는 구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국방부가 군대 내의 잔혹행위를 대대적으로 근절하겠다고 선포하면서부터 구타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1991년 이후의 군인복무규율 제 15조에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군복무를 마친지 20년이 되어가는 김재우(51) 씨는 "군대에서 복무할 때 선연한테 정말 많이 맞았다. 힘들었던 만큼 추억은 많다. 그렇지만 무차별적 폭력은 군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곧 있으면 아들도 군대를 가야하는데, 구타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2013년도 사라진 병사보직

지난 6월 SBS 현장21은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편을 방영했다. 이 방송은 연예병사의 삶을 대로 굶은 문제가 비로소 터짐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일로 인해 연예병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올해 사라진 병사보직은 연예병사뿐만이 아니다. 전경 역시 올해로 마침표를 찍었다.

연예병사의 정식 명칭은 국방부 홍보지원병사이다. 1997년에 창설된 연예병사 제도는 군의 홍보와 장병 사기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들은 각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위문 공연을 하거나 국군방송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 증진을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초 연예병사인 비아 배우 김태희의 스캔들을 시작해 비의 탈모보행과 휴가 일수가 기사화되었고 그에 따라 봄을 비롯하여 전역한 모든 연예병사들 특히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사건들의 논란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잦아드는 듯 했다. 그러나 6월 SBS 현장21이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방송 이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국방부는 지방 공연 후 일부 연예병사들이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연예병사 폐지를 결정했다.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연예병사로 소속된 12명의 병사들은 최전방으로 재배치 받았다.

전경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9월 2일 전경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이 서울 경찰청 대강당에서 합동 전역식을 가졌다. 전투경찰의 줄임말인 전경은 1971년 국방부장관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요구에 따라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전경이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그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이다. 전경의 역할은 의경(의무경찰)이 대신하게 된다.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 연예병사 제도와 인원 감소로 인해 전경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현재 병사의 보직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들도 연예병사나 전경처럼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어느 군인의 군피소드

상병 때의 일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경계를 서며, 상황 발생에 따라 행동하는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구역의 초소에서 포반장님과 상황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초여름의 날씨와 포반장님과의 어색함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어느새 보니 포반장님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라 모르겠다'며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고 보니 눈앞에 연대간부 차량이 보였습니다. 불시 순찰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규석(제 17보 병사단)

전역하기 두 달 전 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작동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내려와서 "비상! 비상! 모든 장병들은 전투준비를 하고 연병장(운동장)에 집합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까진 영문도 모르고 우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대대장이 직접 나와서 "지금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가했다. 데프콘 1단계(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 준비태세) 발령을 명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바로 모든 병사들은 경계근무에 들어갔죠. 그렇게 몇 주 동안 보초를 서야 했는데, 우리부대는 소규모 소대였습니다. 때문에 전 구역에 보초를 서기에는 병사 숫자가 부족했고, 거의 모든 병사들이 하루에 2시간씩만 자야 전체 구역에 보초를 설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구요. "아~ 사람이 잠을 못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북한이 연평도에 2차 폭격을 가했다는 급속보가 들어왔죠.

박민도(행정병)